

제2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4. 4. 18.(목) 10:00

5 분 자 유 발 언

(집행기관은 구민의 뜻을 담은
5분 자유발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박재완 의원)

- 집행기관은 구민의 뜻을 담은
5분 자유발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 송정동에 지역구를 둔 박재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초선의원으로서 1년 10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8대 의회 개원 이후, 저를 포함한 8대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느 대수보다 적극적으로
많은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북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뿐만 아니라 구정에 바로 적용할 만한
실제적인 제안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이
답변의 강제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단지 의미 없는 빈말로만 인식되고
애써 준비한 소중한 제안들이 사장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은 단지 의원 한 사람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에는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발언했던 ‘북구 지역 학교의
과대·과밀학급 문제’, ‘경로식당 급식단가 인상’,
‘중대재해 예방 대비’ 등 모든 제안들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직접 보고, 듣고, 몸소 느낀 내용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 사례 수집과 현황 파악 등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번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게 준비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이 고심과 노력을 허망하게 만드는
집행기관의 묵묵부답은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분명히 구정질문과는 달리
답변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 의무에 기대어 대답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지역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자
형식과 의무가 정해진 구정질문이 아닌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된 내용 중에는
집행기관에서 반영하기 힘든 사안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이 안되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각종 업무 및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누구보다 바쁘시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해서
북구 주민들의 불편함을 내버려 두거나
더 나은 북구를 위한 제안을 외면해서야 되겠습니까?

비록 각자의 역할과 자리가 다르긴 하지만,
의회도, 집행기관도 다 함께 북구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동료입니다.

정말 구민을 위해 도움이 되고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제안과 의견이라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구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구민을 위한 정책발언이라면 해당 부서에서는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여 발언한 의원과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이인삼각 달리기’와 같다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북구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합심하여 달려가야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목소리가 답 없는 외침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고 피드백해 주실 것이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더 나은 북구 발전을 위한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